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정동



(地下壕)이고 지상에 있는 것이 엄체호라 보면 된다.

그러면 필자는 지금 왜 별안간 격납고와 엄체호를 말하는가? 일제는 2차대전 말인 우리나라 여러 곳에 엄체호를 만들었다.

잊혀지는 전쟁의 흔적

고전이 되어 버렸고, 최근에는 도심의 유적지 찾기가 성행하다.

전쟁 문화재 중 하나로 격납고(格納庫)와 엄체호(掩壕)라는 것이 있다.

근이 귀할 때여서 철근도 들어가는 등 마는 등이었다.

이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흙을 통글게 쌓아 곁들을 만든 다음, 그 위에 가마니를 덮고 원형철근 몇 가닥을 넣고 콘크리트를 쳐 활자봉(볼트)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엄체호는 전쟁 때 실제로 쓰이지 않았다. 만든지 얼마 안 되어 8·15 광복을 맞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문화재청은 최근 격납고와 엄체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동안 경남 밀양시 삼남면 기산리 구 비행장 격납고 2기(등록문화재 206호)와 남해주 비행기 격납고 1기(39호)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급전 초에는 경북지역에서 이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시행됐다.

외국은 전쟁문화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의 것은 아무도 눈길도 끌지 못한 채 나타나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목원대 교수·문화재 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후회할 것” 발언 對韓 선전포고인가

참으로 못 말할 이웃이다.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25일 “한국과 중국은 후회할 때가 올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외신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넘어 과연 그가 문명국의 지도자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근대 이래 국가간의 외교수사(外交修辭) 그것도 정상(頂上)의 발언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극단의 표현을 금기로 하고 있다.

즈미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 강경담화에 신경이 곤두선 것 같다”고 지적할 때가 아무리 갑안 한다 해도 이는 한일 관계사에 오래 기억될 막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25일 노대통령의 독도담화 발표 이후 이제 우리정부와 국민이 각을 단단히 해야 만 하게 됐다

어제 외교부는 독도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으로 간 일자리 21만개와 青年 실업난

국내 제조업공동화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도 국내 투자를 꺼리는 이유들이다.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도 국내 투자를 꺼리는 이유들이다.

기업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대거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는 것은 경제기반 붕괴와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용익



정말 짧은 기간에 참으로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고 명함을 건넸다.

통령을 뽑고,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정치 생활, 생활 정치

더 크게 자리잡는다. 우리 모두가 정치적 행위들을 하고 있으며, 그 정치적 행위들의 결과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안타까움은 더 크게 자라난다.

통령을 뽑고,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이들을 우리의 대표로, 일꾼으로 뽑는 과정이다.

‘순경’ 표현보다는 ‘경찰 공무원’이 적절

큰아들과 사촌 조카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취임난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 시험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고 들었다.

해주면 안된다. 또 경찰공무원 시험에 마치 응시 할 곳이 없는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기고

최진수



우리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A씨. 부나 사회적 지위, 자식교육 대부분의 측면에서 정상에 올라서 좀 여유있게 하산하려는 순간.

건강이 과연 개인이나 그 가족들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처럼 건강을 시장이나 개인의 지불능력에 맡긴 경우 빈곤이 건강악화를 부르기도 하고 불건강이 빈곤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건강을 돌보겠다는 후보를 찾자

나갈 후보자들이 하나 둘 확정되고 장미빛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건강이 개인이나 그 가족들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처럼 건강을 시장이나 개인의 지불능력에 맡긴 경우 빈곤이 건강악화를 부르기도 하고 불건강이 빈곤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 집주소 소방서에 미리 등록하면 어떨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간을 소비한다고 한다. 다급해진 아이들이 정확한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無等鼓

“일본이 자동차에서 독자 발명한 것은 거울을 집어넣는 장치 정도다”

다. 한 순간 빠듯하면 아무리 과거에 세계를 주름잡은 회사도 순식간에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세계 자동차업체의 판도다.

6년 연속 최고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우며 연속 질주를 하고 있는 오쿠다 히로시(奥田碩) 도요타 자동차 회장이 최근 한 공식석상에서 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현대자동차의 일련의 사태는 미국이나 일본 자동차 업계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도요타의 엄살



이 오쿠다 회장의 발언이 겸양의 차원을 넘어 다분히 계산된 ‘엄살’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상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따라 세계 자동차 시장의 ‘빅 5’로 성장하기 위해 탄탄대로를 달려왔다.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